뺨맞는 교사 … 추락한 교권

"체벌했다" 인터넷 올리고 합의금 요구

"왜 내 아들만 빵 안줘" 담임교사 폭행

"밤 길 조심해라" 학부모가 1년 간 협박

학교 밖 알려질까 '쉬쉬'… 속앓이만

전교조광주지부 전담변호사 선임도

#지난달 초 광주 모 중학교 교사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체벌 때문에 반 아이가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본 일부 언론에서 취재까지 나섰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이 교사는 일단 해당 학부모에게 "죄송하다. 글을 좀 삭제해 줬으면 한다"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되레 합의금을 요구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 3월 반 아이들에게 일명 '빵 턱'을 냈다가 낭패를 봤다.

당시 자리를 비웠던 B군이 자신의 빵을 챙겨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짝꿍을 폭행한 것이다. B군은 이를 꾸짖는 A교사에게도 물건을 던지는 등 말썽을 피웠다. B군은 한번 화가 나면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충동성 성격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으로, 학교에서도 요주의 대상이다.

A교사는 "다음날 B군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우리 아이만 (빵을 주지 않고)차별해 소동이 일어난 것 아니냐며 되레 항의하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부모에게 뺨까지 맞았다.

#광주의 모 중학교 교사 C씨는 1년 가까이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바람에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다. C교사는 2009년 내내 밤낮없이 "우리 아이를 미워한 것을 복수하겠다.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알고보니 협박자는 신학기 때 주의가 산만해 '양팔 들고 5분간 서 있기' 벌을 준 아이들 중 한명의 부모였다.

C교사는 "경찰 신고도 고민해 봤지만, 제자의 부모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결국 참다보니 속병만 생겼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올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권위협' 사례는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초·중·고교 300여곳에서 학교당 2~3건꼴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언·폭행·협박을 당한 사례가 2005년 대비 2009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위협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자녀가정이 늘면서 과잉보호 속에 자란 학생들의 충동·폭력성이 강해진 데다, 부모들도 무조건 자식만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높아진 탓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정섭 정책실장은 "요즘의 교권위협 실태는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충동성 성격장애 의심' 학생과 그 부모들 때문에 교사는 물론 나머지 학생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와 병원 등을 연계한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사들도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당당해 져야만 교권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 광주서부경찰이 중간 배보책들로부터 명함형 음란 전단지 3만2000장이 들어있는 상자 45개(총145만여장)를 압수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작계 5027' 북에 넘긴 현역 육군 소장 구속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오토바이로 경찰 친 1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0일 교통신호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오토바이로 친 뒤 달아난 이모(17)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군은 지난 19일 오후 5시5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상가 앞 길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노모(30) 순경·오모(25) 순경을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여자 속옷 훔쳐 입고다닌 대학생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20일 무속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과 현금 등을 훔친 전남 모 대학 2년 신모(20)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내방동 한 주택 2층에 사는 신씨는 지난 15일 밤 9시30분께 1층 한모(여·32)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속옷 10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속옷 20점과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

○…담당 경찰은 "신씨는 훔친 속옷을 직접 입고다니기도 했으며, 속옷 가운데 일부는 집 근처에 버렸다"고 설명.

광주시청 직원들이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중학교 앞 도로 표지판의 운천사'磨崖如坐像來(마애여좌상래)' 표기를 '磨崖如來坐像(마애여래좌상)'으로 바꾸고 있다.

관광지·문화재 안내 표지판 등 잘못된 중국어 표기 전면 수정

광주시, 중국어 표기 확대

광주지역 관광지·문화재 안내표지판과 웹사이트에 잘못된 중국어 표기가 많다는 본보 지적〈7월20일자 6면〉에 따라 광주시가 전면수정에 나섰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서구 쌍촌동 상무중학교 앞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운천사'磨崖如坐像來(마애여좌상래)'라고 적혀있는 것을 '磨崖如來坐像(마애여래좌상)'으로 바로잡았다.

앞으로 광주시는 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잘못된 중국어 표기를 수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중국어용 홈페이지의 광주소식 게시판의 일부 오류도 이날 모두 바로 잡았으며 중요 시설 표지판마다 중국어(간자체) 표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멸종위기 동물 잡아 판매 모 환경신문사 간부 체포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건강원을 차려놓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 등을 포획해 가공품을 판모 환경신문사 간부 임모(49)씨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임씨가 불법으로 포획한 구렁이 13마리, 살모사 13마리 등을 압수했으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 구매자들을 밝혀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월부터 완도군 야산에서 황구렁이 6마리(판매가 1200만원 상당), 먹구렁이 7마리(판매가 1400만원 상당), 까치살모사 13마리 등을 포획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물을 즙이나 술 등으로 만든 뒤 재력가나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자신이 활동 중인 모 환경신문의 부국장 명함을 들고다니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고,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주와 영암 등의 택시기사들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서구청 관권선거 공무원

23명 경징계

6·2 지방선거에서 당원모집에 관련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서구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6·2 지방선거에서 당원모집에 관여한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인사위에 회부된 23명 중 신모(6급·55)씨 등 21명에 대해 6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견책'처분을, 검찰에 기소된 김모(6급·45)씨 등 2명에게는 '감봉'처분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신씨를 제외한 20명은 수상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경고'로, 김씨 등 2명은 감봉으로 한 단계씩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간책' 2명 검거

서부경찰, 공급자 추적

'불법 전단지 척결'을 선언한 광주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음란 전단지 수 백만장을 배포한 중간책들을 잇따라 적발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불법 전단지 공급업자로부터 명함형 음란전단지를 받아 배포자들에게 전달한 노모(28)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단지 공급업자 박모(43)씨로부터 전단지 576만여장을 받은 뒤 이 가운데 200여만장을 직접 뿌리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자신의 승합차를 이용해 광주시 북구 양산동 일대에서 박씨로부터 전단지를 받은 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배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경찰에서 "한 달에 130~180만원을 받고 전단지를 뿌렸으며, 지난 1년간 800만장 가량을 박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께 북구 양산동 모 교회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단지 공급업자인 박씨를 추적하는 한편, 음란 전단지 배포를 의뢰한 업주와 인쇄업자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음란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배포를 지시한 송모(30)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송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서구 금호동 한 모텔 앞에서 50㏄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며 음란 전단지 수백장을 뿌리는 등 전단지 17만여장을 살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전단지 중간책들에 대한 검거 과정에서 불법 전단지 배포를 총괄하는 공급업자의 존재가 드러났다"며 "이번에 압수한 전단지 145만장은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반드시 공급업자와 인쇄업자, 배포 의뢰자 등을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	
1관	마법사의제자(전체)	1관	포화속으로 (12세)
2관	마음이2 (전체)	2관	나잇&데이 (15세)
3관	포화속으로(12세)/이클립스 (12세)	3관	슈렉 포에버(더빙) (전체
4관	이클립스 (12세)	4관	슈렉 포에버(3D) (전체
5관	명탐정코난-천공의난파선 (전체) 나잇&데이 (15세)	5관	슈렉 포에버(더빙) (전체
6관	슈렉포에버(더빙)(전체)/포화속으로(12세)	6관	인셉션(12세)
7관	인셉션(12세)	7관	인셉션(12세)
8관	이끼(18세)	8관	이클립스 (12세)
9관	이끼(18세)	9관	이클립스 (12세)
10관	인셉션(12세)	10관	마법사의제자(전체)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련던역국시거리 ☎ 1544-0600

MEGABOX

M관	인셉션(12세)	최고급관
2관	이끼(18세)	
3관	이클립스 (12세)	
4관	나잇앤데이(15세)/마법사의제자(전체)	
5관	이끼(18세)	
6관	마음이2 (전체)	
7관	이클립스 (12세)	
8관	마법사의제자(전체)	
9관	인셉션(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인셉션(12세)	
2관	이클립스 (12세)	
3관	슈렉 포에버 (전체)/이 끼(18세)	
4관	마음이(전체)/나잇&데이 (15세)	
5관	이 끼(18세)	
6관	마법사의제자(전체)	
7관	인셉션(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